

‘라쇼몽 효과’의 현대적 수용과 원형적 의미

- 아쿠타가와와 ‘라쇼몽’과 ‘덤불 속’을 중심으로 -

김옥지*
kimochi39@gmail.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라쇼몽 효과’의 현대적 수용 |
| 2. 시대의식과 문학적 공간 | 5. 마치며 |
| 3. 캐릭터의 핏진성(逼真性) | |

주제어: 라쇼몽 효과(Rashomon Effect), 에고이즘(egoism), 이기주의(selfish), 리플리증후군(Ripley's Syndrome), 캐릭터(character), 근대의식(modern consciousness)

1. 들어가며

최근 뇌물수수관련 정치스캔들과 대학의 성희롱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사건에 대한 당사자 간의 진실 공방은 대중매체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달구며 한동안 최대 이슈였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당사자들은 제각기 해석을 달리하면서 자기중심의 편협한 논쟁으로 진실규명은 회석되어 갔다. 급기야 이를 가리키며 ‘라쇼몽 효과’라는 타이틀로 뉴스의 오프닝을 하는 방송채널도 생겨났다.¹⁾ ‘라쇼몽 효과’란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해석해 본질을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으로 정치·경제·문화 등 전반에 걸쳐 언급되었다.²⁾

본디 ‘라쇼몽 효과’는 일본 구로사와 아키라(黒沢明) 감독의 영화 <라쇼몽(羅生門)>에서 비롯된 신조어이다. 영화 <라쇼몽>은 1950년에 발표된 고전임에도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영화와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고 있다. 한 편의 흑백영화가 여전히 문화콘텐츠로 리메이크되는 원동력은 시나리오의 원작이었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이하 아쿠타가와라 함)의 「라쇼몽(羅生門)」³⁾과 「덤불 속(藪の中)」⁴⁾에서 비롯되었다. 영화의 플롯

*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시간강사

1) JTBC 앵커브리핑(2015.03.02.)<<http://news.zum.com/articles/20151250?cm=popular>>

2) 한국 언론 뉴스허브(2011.07.02.)<<http://news.zum.com/articles/240554>>

3) 柳川隆之介(1915)「羅生門」『帝国文学』11月

은 「덤불 속」을 중심이면서도 타이틀로 「라쇼몽」을 내걸었던 내러티브를 통해 아쿠타가와와 문학텍스트가 어떻게 각색되었는지 ‘라쇼몽 효과’의 현대적 수용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아쿠타가와는 헤이안(平安)시대를 배경으로 「라쇼몽」과 「덤불 속」에 사건이 전개되는 라쇼몽 누각과 재판정을 상징적 공간으로 부여해 이에 주목한다. 우선 「라쇼몽」의 라쇼몽 누각은 거의 다 허물어진 폐허에 온갖 쓰레기와 인간의 사체까지 버려지는 공간으로 「투도(偷盜)」⁵⁾와 「로쿠노미야노히메기미(六の宮の姫君)」⁶⁾에 묘사된 장면과는 차이가 있어 각 작품의 상징적 요소는 무엇인지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덤불 속」은 숲 속에서 가슴에 칼이 꽂힌 채 죽은 무사를 발견,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려는 내용으로, 사건은 숲 속에서 벌어졌으나 이를 심문하는 재판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종결해 여기에 작가의식이 있어 보인다. 이 같은 상징적 공간에 아쿠타가와와 그 시대를 표상하는 등장인물의 캐릭터 설정에도 주력했다. 「라쇼몽」은 하인과 노파의 이기적인 행태를 지적했으며 나아가 「덤불 속」은 마사고(眞砂)와 마사고의 남편 다케히로(武弘), 도둑 다조마루(多襄丸) 등 한층 복잡해진 인간의 이해관계를 다뤘다. 「덤불 속」의 마사고는 남편 앞에서 능욕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자신을 겁탈한 다조마루에게 남편을 죽이고 함께 달아나자고 유혹하는 캐릭터였다.

감영희는 「덤불 속」의 마사고에 대해 남편에게만 애정을 향하게 함으로써 여성이 지녀야 할 진정한 의미의 기질을 부각시켰고 나아가 강간이라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당찬 인물로 부각시켰던 것은 아쿠타가와와 작가적 기질이 돋보였던 단락이라 한다.⁷⁾ 「덤불 속」의 마사고는 아쿠타가와와 사랑했던 연인 시게코(秀子)와 흡사했다. 아쿠타가와와 시게코와의 연인관계를 「어느 바보의 일생(ある阿保の一生)」⁸⁾과 「톱니바퀴(齒車)」⁹⁾, 「아키(秋)」¹⁰⁾ 등에 묘사했으며, 결국 그녀의 배신으로 상처를 받았던 그는 「덤불 속」의 마사고에 투영했다. 이를테면 「덤불 속」에 인간의 애고이즘을 극대화시켰던 마사고 캐릭터는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은 아니

4) 芥川龍之介(1922)「藪の中」『新潮』1월

5) 芥川龍之介(1917)「偷盜」『中央公論』4월

6) 芥川龍之介(1922)「六の宮の姫君」『表現』8월

7) 감영희(2010)「야부노나카」『藪の中』소고찰(2)-「기요미즈데라에 온 여자의 참회」단락에서 보는 마사고의 사랑」『일본문화연구』제56집, p.20

아쿠타가와와 남자의 부당함(남편의 멸시와 남자의 욕정 등)에 대해 남자들에게 죽음으로 벌을 내림으로써 여성의 강함을 그려내면서도, 진정한 여성의 기질이라는 것은, 한 남자(남편)에게만 애정을 향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여성이 지녀야 할 기질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두 단락을 통한 마사고의 공통점은 기가 센 여자이지만, 그러한 성질을 각 단락에서는 변화시켜가며, 강간이라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여성의 당찬 모습으로 그려낸, 아쿠타가와와 작가적 기질이 돋보이는 단락이라 하겠다.

8) 芥川龍之介(1927)「ある阿保の一生」『改造』10월

9) 芥川龍之介(1927)「齒車」『文芸春秋』10월

10) 芥川龍之介(1920)「秋」『夜來の花』4월

지만 현실에 “있음직함” 혹은 “그럴듯한” 픽진적·실제적 요소가 있었다. 캐릭터의 픽진성은 도식화된 인물설정에 비해 강한 인상을 남겼고 이것은 「덤불 속」의 다조마루의 캐릭터설정에 도 나타났다. 다조마루는 살인사건의 범인이자 극형에 처해질 것임에도 살인의 정황이나 증거도 없이 일관되게 자신이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강혜선은 「덤불 속」의 다조마루가 범인이라고 자처했던 것은 죽음에 초연하고 ‘명예’와 ‘지조’를 지키려는 행동으로 악인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이면적인 호감을 표시한 인물이라 한다.¹¹⁾ 「덤불 속」의 다조마루는 다케히로와 정정당당한 결투 끝에 그를 죽였다고 주장했지만 다조마루가 휘둘렀던 칼은 장검이었고 다케히로의 가슴에 박힌 칼은 단검으로 거짓진술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다조마루가 자신의 목이 달아나더라도 사실만 말하겠다는 진술은 거짓 그 자체였다. 다조마루는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면서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는 성취욕구가 강한 이기적인 인간의 행태를 보였다. 다조마루의 행태는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로 이따금 매스컴에 등장하는 실제적 요소가 있었다. 다조마루와 마사코의 캐릭터가 인간의 이기주의 행태로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덤불 속」의 서술형식에 있었다. 「덤불 속」의 서술형식은 마치 지문 없는 시나리오와 같이 제각기 등장인물의 진술이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 일곱 명의 진술은 각자의 주장을 나열하는 전개방식은 등장인물 간의 직접적인 대립구도로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지 않으며 미완의 결말처럼 귀결되었다. 결국 일곱 명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진상은커녕 그 실체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작가의식을 놓치지 않았던 구로사와 감독은 영화 <라쇼몽>에 연출기법으로 활용했으며 아쿠타가와문학에 기초한 ‘라쇼몽 효과’의 철학적 주제를 도출했다. 대중적으로 수용되는 ‘라쇼몽 효과’는 다양한 콘텐츠로 리메이크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도 뮤지컬 <씨왓아이워너씨(See What I Wanna See;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와 연극 <나생문>으로 수차례 공연하는 등 날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반면에 정작 콘텐츠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아쿠타가와문학 「라쇼몽」과 「덤불 속」은 간과되었다.

송민숙은 뮤지컬 <씨왓아이워너씨>에 대해 절대적인 진실은 무엇인가 과연 진실은 존재하는가의 주제로 공연하였으며 이는 연극 <나생문>에 비해 지적이고 철학적인 메세지였다고

11) 강혜선(2008)「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아부노나카(藪の中)』에 나타난 부조리성 연구」『인문연구』제70호, pp.44-449

다조마루가 설사 이 사건에서 살인죄를 면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자신이 저지른 범행으로도 자신은 어차피 사형될 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어 자포자기한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그런 태도는 일반적인 범죄자의 태도와 확연히 다른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명예를 지키며 ‘떳떳하게 죽고 싶다’는 식의 오연함이 느껴진다. (중략) 작품 속 최고의 악당인 다조마루까지도 ‘죽음에 초연하고’ ‘명예’와 ‘지조’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악인이지만 미워할 수 없게’만들어 이면적인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

기술했다. 그리고 뮤지컬의 원작으로 아쿠타가와와 「덤불 속」과 「용(龍)」, 「게사와 모리토(袈裟と盛遠)」라 지적했다.¹²⁾ 뮤지컬의 원작으로 「용」과 「게사와 모리토」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뮤지컬뿐만 아니라 연극 <나생문> 또한 아쿠타가와와 소설 「덤불 속」과 「라쇼몽」을 토대로 리메이크 되었음에도 「라쇼몽」은 간과되었다. 아쿠타가와와 근대소설이 시대와 국가를 초월해 현대에도 소통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오늘날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나아가 아쿠타가와문학의 현대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라쇼몽 효과」의 원형적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2. 시대의식과 문학적 공간

1915년 「라쇼몽」으로 문단에 데뷔했던 아쿠타가와와는 자신이 처한 현실과 동떨어진 유쾌한 소설을 쓰고자 했던 집필동기를 밝혔다. 아쿠타가와와 요시다 야요이(吉田弥生)라는 여성과 결혼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전통사회의 명분을 내세우며 반대했던 가족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연애문제로 침울했던 아쿠타가와와는 가능한 한 현실과 동떨어진 유쾌한 문학세계를 지향하며 「라쇼몽」을 집필하고자 했다.¹³⁾ 그러나 「라쇼몽」은 주인집에서 쫓겨난 갈 곳이 없어 으스스한 데를 헤매는 하인과 시체의 머리카락을 팔아 살아가는 노파를 다룬 내용으로 유쾌한 소설과는 거리가 있었다.

원인을 말하자면 최근 2, 3년 교토에는 지진과 돌풍, 화재, 기근이라는 재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래서 도성의 쇠퇴한 이유는 한 가지는 아니다. 옛 기록에 의하면 불상과 불교 도구를 부수고

12) 송민숙(2008) 「강한 시청각 이미지를 제공한 뮤지컬<씨왓아이워너씨>」 『공연과 이론』 31집, p.215
뮤지컬<씨왓아이워너씨>는 1900년대 일본 소설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단편소설 「덤불 속에서」와 「용」, 「게사와 모리토」를 바탕으로, 2000년대 뉴욕 센트럴 파크를 배경으로 각색한 것이다. 1막은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2막은 신의 기적에 대한 계시라는 사건을 각 인물의 시점에서 전개한다. 이를 통해 뮤지컬은 절대적 진실은 무엇이며, 과연 진실은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하나의 살인사건에 대해 세 명의 인물이 각각 다른 진술을 하는 2막의 에피소드는 일본 영화감독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 <라쇼몽>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13) 菊池弘(1972) 「羅生門」 『国文学』 17卷16号12月臨時号, p.35
별고 「그 무렵 자신의 일」에서 <당시 적었던 소설은 「라쇼몽」과 「코」 두 편이었다. 자신은 반년 전부터 나쁘게 집착했던 연애문제의 영향으로 혼자가 되면 침울했기 때문에 그 반대로 가능하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가능한 한 유쾌한 소설을 쓰고 싶었다. 그래서 서둘러 곤자쿠모노가타리에서 자료를 발췌해 두 편의 단편을 적었다. 적었다고 해도 발표했던 것은 「라쇼몽」뿐이고 「코」는 아직 중도에 그만 둔 채로 한동안은 정리되지 않았다>고 한다.

붉은 칠을 했거나 은색을 입힌 나무를 길가에 쌓아 장작으로 팔았다는 것이다. 도성이 그런 형편이 나간 라쇼몽은 이전부터 아무나 버리고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극도로 황폐해질대로 황폐해져 여우가 산다. 도둑이 산다. 결국에는 연고가 없는 인간의 사체를 문 앞에 버리는 관습조차 생겨났다.¹⁴⁾

「라쇼몽」의 누각은 몇 년간의 지진과 화재, 기근 등의 악재로 점차 폐허로 변했고 급기야 인간의 시체를 버리는 장소로 전락했다. 여기에 주인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는 하인이 비를 피하기 위해 라쇼몽 누각 아래에 있다가 시체의 머리카락을 뽑는 노파를 발견하고 그의 악행을 지적했다. 노파는 죽은 여자가 살아생전에 뱀 고기를 말려 생선이라고 속여 팔았기에 죽은 여자도 이 정도의 일은 저질러도 된다고 자신의 악행을 합리화시켰다.¹⁵⁾ 「라쇼몽」에서 라쇼몽 누각은 인간의 이기적인 행태나 악행이 정당화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헤이안말기의 교토 외곽의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다뤘다. 헤이안말기를 배경으로 「투도」 또한 라쇼몽 누각을 다뤘으나 「라쇼몽」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투도」는 남의 물건을 빼앗아 살아가는 도둑, 다로(太郎)와 지로(次郎)의 형제와 그 일행을 다룬 이야기이다. 「투도」에서 라쇼몽 누각은 두 형제와 그의 일행들이 아무런 갈등이나 죄의식 없이 강도짓을 일삼는 장소였으며 그들의 거처이기도 했다.¹⁶⁾ 「투도」에서 형제의 강도짓은 「라쇼몽」의 마지막 문장 ‘그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의 하인의 행방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의 행위는 이미 라쇼몽 누각에서 암시하였다.¹⁷⁾ 이를테면 아쿠타가와가 인식한 인간의 에고이즘의 출발점은 라쇼몽 누각이었던 것이다. 이에 해질 무렵 비마져 내리는 황폐한 누각은 온갖 쓰레기와 동물과 인간의 사체가 널려 있는 공간으로 그려졌다. 「라쇼몽」에서 하인의 강도짓은 노파의 행위와 더불어 자신도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노파의 옷을 벗겨 달아났던 라쇼몽 누각에서 비롯되었다.¹⁸⁾ 하인의

14) 芥川龍之介(1995)「羅生門」『芥川龍之介全集』第二卷、岩波書店、p.145

15) 芥川龍之介(1995)「羅生門」『芥川龍之介全集』第二卷、岩波書店、pp.153-154

지금 내가 막 머리카락을 뽑은 여자는 뱀을 10센티 정도로 잘라 말린 것을 말린 생선이라며 병사들의 진영에 팔러 갔다. 역병으로 죽지 않았다면 지금도 팔러 갔을 것이다. 그것도 여자가 팔았던 말린 생선은 맛이 좋다고 병사들이 빠짐없이 반찬으로 샀었지. 나는 여자가 했던 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죽을 거라서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러면 지금 또한 내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또한 하지 않으면 굶어죽을 거라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여자는 아마 내가 하는 것도 너그러이 봐 줄 것이다.

16) 芥川龍之介(1995)「偷盜」『芥川龍之介全集』第二卷、岩波書店、p.124

이노쿠마의 노파는 짜증스럽게 입술을 삐죽거리며 「용건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밤 일정도 아직 듣지 못했으니깐」 「뭘, 일정은 변함이 있겠냐. 모이는 곳은 라쇼몽, 시간은 밤 10시-모두 옛날부터 정해져 있는 대로」

17) 芥川龍之介(1995)「羅生門」『芥川龍之介全集』第二卷、岩波書店、p.201

하인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

18) 芥川龍之介(1995)「羅生門」『芥川龍之介全集』第二卷、岩波書店、p.154

악행이 비로소 합리화되는 공간 즉 라쇼몽 누각은 아쿠타가와와의 인간인식의 출발점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투도」의 라쇼몽 누각은 그 일행들이 강도짓을 위해 밤이면 으레 모이는 장소였으며 그 곳에 강도짓을 위한 복장과 무기를 숨겨두거나 훔친 물건을 감춰 두기도 했다. 무장을 한 그들은 단순한 강도짓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잔인함을 보였다.¹⁹⁾ 이는 「라쇼몽」에서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어 악행을 저지르는 노파와 하인의 행위가 만연해진 양상으로 「투도」에는 살인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졌다. 악행이 만연한 「투도」의 라쇼몽 누각은 「로쿠노미야노히메기미」의 헤이안시대의 화려한 전성기를 그렸던 공간과도 의미를 달리했다.²⁰⁾ 요컨대 「라쇼몽」에 헤이안시대의 황폐한 라쇼몽 누각은 근대를 표현하고자 했던 상징요소가 있었고 아울러 인간의 악행이 비로소 합리화되는 인간인식의 출발점으로 아쿠타가와문학에서 상징적 공간이었다. 아쿠타가와와는 「라쇼몽」의 집필동기로 자신의 결혼을 둘러싼 가족들과의 갈등을 드러냈으며 「덤불 속」 또한 유년시절의 경험을 표출하기도 했다. 니하라(新原)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아쿠타가와와는 생후 7개월월에 생모의 발광으로 외가의 아쿠타가와집안에서 자랐다. 생부 니하라 도시조(新原敏三)와 후유(フユ)가 재혼하면서 이복동생이 태어나자 후유의 요구에 의해 아쿠타가와와는 외가의 호적에 법적으로 입적하게 되었다.²¹⁾ 12세의 아쿠타가와와는 외가의 양자로 입적되면서 친가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위해 피고로서 법정에 나가 재판장의 심문을 받았다.²²⁾ 「모성 상실」의 출생과 생부와의 절연을 겪어야 했던 어린 아쿠타가와로서는 친가와 외가의 가족들에 대해 받아들이

「그렇다면 내가 벗기려 해도 원망하지마라.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죽을 몸이다」 하인은 재빨리 옷을 벗겼다. 그리고 나서 다리에 매달려 있는 노파를 거칠게 시체 위로 쓰러뜨렸다.

- 19) 芥川龍之介(1995)『偷盜』『芥川龍之介全集』第二卷、岩波書店、p.169

샤킨은 평소에 강도짓을 하러 가는 밤에는 기꺼이 남자 복장으로 분장을 했다. 강도짓에 입는 복장이나 무기는 모두 라쇼몽 누각 위에 가족주머니에 넣어 둔다. (중략) 다로는 길 건너 북쪽으로 류혼지 절간의 축담 아래로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가는 두 남녀를 보았다. 낡은 남색의 사냥복장에 보라색 옷의 그림자가 두 개로 겹쳐지면서 앙칼스런 웃음소리를 남기고 골목길 사이로 지나갔다. 신속하게 지니고 있던 남자의 검은 칼집에 장검이 번쩍거리는가 싶더니 두 사람은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다.

- 20) 芥川龍之介(1995)『六の宮の姫君』『芥川龍之介全集』第九卷、岩波書店、p.174

그러자 며칠 후 저녁 무렵, 남자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주작문 앞에 있는 전각의 마룻대 아래 섰다. 그 곳에는 남자 외에도 시주 스님이 한 명, 역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 21) 三好行雄(1979)『芥川龍之介略年譜』『国文学』2月号、p.223

明治37년(1904)-생모 후유가 생부 도시조와의 사이에 이복동생 도쿠지를明治32년에 낳았었는데, 같은 해 7월의 재판판결에 의해 후유의 집안인 니하라 집안에 입적을 조건으로 8월에 아쿠타가와 집안에 정식으로 양자입적을 하였다.

- 22) 海老井英次(1987)『年譜』『芥川龍之介論功』桜楓社、pp.433-434

明治37년(1904) 만12세

5월4일, 동경지방재판소 민사부 타(夕)호 법정에서 상속 포기의 판결을 받는다(피고로서 출정해 재판장의 심문을 받는다). 8월28일, 아쿠타가와 미치쿠사(芥川道草) 양자로서 등록(혼조구청)을 하고 아쿠타가와(芥川)의 양자가 되었다. 9월3일, 숙모 후유가 니하라 집안으로 입적(친부 도시조의 후처).

기 힘든 가혹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아쿠타가와는 어린나이에 법정에 섰던 경험을 「덤불 속」에 다뤘다. 「덤불 속」은 부인과 함께 산길을 넘어가던 무사 다케히로가 시체로 발견되어 이에 연루된 용의자들이 재판정으로 나와 사건에 관한 진술을 나열한 내용이다. 「덤불 속」의 용의자는 제각기 사건 경위를 진술하는데, 그들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는커녕 하나의 사건은 여러 사건을 접하는 듯 이야기는 점점 미궁으로 빠졌다. 이러한 결과는 용의자들의 진술에 의한 결과로 보이나 재판관의 역할 또한 한몫했다. 재판관은 용의자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었음에도 조율이나 중재하지 않는 등 진실규명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덤불 속」의 재판관은 각각의 용의자를 심문했지만 ‘재판관에게 심문받은 나무꾼 이야기’, ‘재판관에게 심문받은 행각승의 이야기’, ‘재판관에게 심문받은 포졸 이야기’ 등으로 등장하고 있을 뿐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²³⁾ 정체를 감춘 재판관은 사건의 진실이나 범인 찾기의 의지는 없었으며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역할을 했다. 이 같은 재판관의 행태를 지적하더라도 하듯 다조마루는 재판관이야말로 권력과 돈,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자로 지칭하며 칼로 사람을 죽이는 자와 같은 악행을 저지른다고 비아냥거렸다.

다만 나는 죽일 때, 허리에 찬 장도를 사용했지만 당신은 장검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권력으로 죽인다, 돈으로 죽인다, 어쩌면 그릇된 말만으로 죽이겠지요. 분명 피는 흘리지 않는다. 남자는 당당하게 살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살해한 것입니다. 죄의 깊이를 생각해 보면, 당신이 나쁜지, 내가 나쁜지 어느 쪽이 나쁜지 모릅니다. (비아냥거리는 미소)²⁴⁾

「덤불 속」의 다조마루가 재판관을 향해 그릇된 말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 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아쿠타가와는 재판관의 권위와 판결에 대한 냉소와 회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와 같은 사회비판의식은 재판관이 등장하는 「갓파」에도 찾을 수 있었다.²⁵⁾ 「갓파」의 재판관은 주어진 상황에 자신의 입장을 주저하는 모습으로 결국 정신병원으로 들어간 인물로 묘사되었는데 이 같은 재판관에 대한 비판의식은 「덤불 속」과 맥을 같이했다. 아쿠타가와에 대한 의식은 사건의 진상규명은커녕 그 실체조

23) 芥川龍之介(1995)『藪の中』『芥川龍之介全集』第八卷、岩波書店、pp.113-114

재판관에게 심문받은 나무꾼의 이야기 (중략) 재판관에게 심문받은 행각승의 이야기 (중략) 재판관에게 심문받은 포졸의 이야기

24) 芥川龍之介(1995)『藪の中』『芥川龍之介全集』第八卷、岩波書店、p.115

25) 芥川龍之介(1995)『河童』『芥川龍之介全集』第十四卷、岩波書店、p.449

하지만 나는 시인과 같이 엄세적이지 않습니다. 갓파들이 때때로 와주는 것은 아-, 이 일은 잊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친구였던 재판관 파브를 기억하겠지요. 그 갓파는 직업을 잃은 후, 정말로 발광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갓파의 세계인 정신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나는 S박사만 승낙해 준다면 병문안하러 가보고 싶습니다만.....

차 파악하지 못하는 재판정과 아울러 사회제도에 관한 근대사회를 비판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덤불 속」의 사건은 덩불 속에서 벌어졌음에도 재판정을 중심으로 작품이 전개되어 다뤄졌다. 유년시절 법정에서 친가와 양가의 이기적인 행태를 경험했던 아쿠타가와는 「덤불 속」의 재판정과 「라쇼몽」의 극도로 황폐한 누각에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근대의식을 실었다. 요컨대 「라쇼몽」의 라쇼몽 누각과 「덤불 속」의 재판정은 인간의 비윤리적인 에고이즘과 아쿠타가와와 근대인식을 상징하는 문학적 공간이었다.

3. 캐릭터의 꺾진성(眞眞性)

아쿠타가와는 문학작품을 통해 라쇼몽 누각과 재판정에 근대의 회의적인 의식을 반영했으며 나아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의 모습에도 주목했다. 「라쇼몽」에서 노파가 자신의 악행을 합리화시키는 장면에서, 누각아래 있는 모든 시체는 ‘그 정도의 일을 저질러도 되는 인간뿐’이라 했다.²⁶⁾ 이는 「투도」에서 다로가 강도짓과 살인을 저지르면서 ‘어차피 모두 짐승이다’²⁷⁾와 같은 맥락으로, 여기에 아쿠타가와가 근대의 대중을 바라보던 의식이 있었다. 아쿠타가와문학의 등장인물의 캐릭터는 근대를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포커스를 두었으며 무엇보다도 흔히 볼 수 없으나 현실에 있음직한 꺾진적·실제적인 요소가 있었다. 진부하지 않은 꺾진적 캐릭터설정은 소설의 리얼리티와 아쿠타가와 특유의 작가의식을 부여해 「덤불 속」의 등장인물에도 그려졌다. 아쿠타가와는 연인 시게코와 한때 사랑에 빠졌던 적이 있었으며 그들은 1919년 6월 10일 ‘열흘회(十日会)’라는 신진문인들의 모임에서 만났다. 당시 1919년 3월에 결혼했던 아쿠타가와와 시게코 또한 자녀를 둔 유부녀로 불륜관계였다. 아쿠타가와와 시게코와의 밀회를 자신의 일기『가키구츠니치로쿠(我鬼窟日記)』에 그 해 10월 29일까지 기록해 그녀를 수인(愁人)으로 부르며 연모하는 심정을 담았다. 그들이 사랑에 빠졌을 무렵 아쿠타가와와 그녀의 이야기를 「어느 바보의 일생」을 비롯한 여러 문학작품에 실었다. 「어느 바보의 일생」에는 시게코를 연상케 하는 광인의 딸과 그리고 「툽니바퀴」와 「아키」는 그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착상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들의 연인관계는 시게코의 배신으로 오래가지

26) 芥川龍之介(1995)『羅生門』『芥川龍之介全集』第二卷、岩波書店、p.153

그렇지,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쁜 일이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여기에 죽은 사람은 모두 그 정도의 일을 당해도 되는 인간뿐이다.

27) 芥川龍之介(1995)『偷盜』『芥川龍之介全集』第二卷、岩波書店、p.169

다로는 이마를 찡그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괴로운 듯이 중얼거렸다.
「어차피 모두 짐승이다」

못했다. 시게코가 아쿠타가와와의 동료작가인 남부 슈타로(南部修太郎)와 사귀게 되면서 그들의 연인관계는 끝이 났다. 아쿠타가와와는 상당한 상처를 받았으며 이 같은 심경을 36세 젊은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그의 유서에 남기기도 했다.²⁸⁾ 시게코와의 만남을 통해 겪었던 고통을 아쿠타가와와는 「덤불 속」의 마사고에 투영했다. 「덤불 속」의 마사고는 도둑 다조마루에게 유린당했음에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남편이 스스로의 무능함을 자책하기는커녕 부인을 경멸하며 바라보았고 그 눈빛 때문에 자신을 겁탈한 다조마루에게 오히려 남편을 죽이고 함께 달아나자며 유혹하는 캐릭터였다. 뿐만 아니라 마사고는 칼에 찔린 남편을 발견하고 달아났음에도 오히려 남편을 원망하기만 했는데 이 같은 마사고의 인물 설정에는 아쿠타가와와의 여성에 대한 관점이 있었다.

김영희·백성희는 「덤불 속」의 마사고의 팜프파탈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해 뒤집어버릴 정도로 여성의 잠재적인 힘을 보여준 것이라 한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팜프파탈이 지닌 성적인 힘은 남성의 가부장적인 질서에 대한 위협과 희생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보디 히트’나 원초적 본능’과 같은 영화에서 성적 욕망을 지닌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공포를 발견하기도 한다. 즉 팜파탈은 역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뒤집어버릴 정도의 힘을 여성들이 잠재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중략) 본고에서는 다만 다조마루의 자백을 통해 본 모습이지만, 그녀의 숙명의 여인 팜파탈적 기질은 『야부노나카』의 작품 전체를 커버할 정도의 주제라는 생각마저 든다.²⁹⁾

마사고의 팜프파탈 기질은 작품 전체를 커버할 정도의 주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덤불 속」의 마사고는 자신을 강간한 남자에게 남편을 죽이고 함께 달아나자고 제안했던 인물로서 남성의 가부장적인 질서를 뒤집어버릴 정도로 여성의 힘을 보여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덤불 속」에서 시게코를 떠올리며 마사고를 그렸던 아쿠타가와와는 정조를 잃은 마사고가 오히려 정부에게 남편을 죽이고 달아나자는 인물로 설정했다. 아쿠타가와가 자신의 유서에 남길 정도로 시게코의 배신은 사랑을 잃은 슬픔보다 더 충격적이었기에 「덤불 속」에서 마사고의 이기적인 행태로 상처와 분노를 느껴 자살해 버리는 남편의 모습에 자신의 고통을 투영했던 것이다. 마사고의 이기적인 행태보다 사건을 한층 미궁으로 빠뜨리며 작품의

28) 芥川龍之介(1995)『我鬼窟目録』『芥川龍之介全集』第二四卷、岩波書店、p.415

그러나 그 중에서도 대사건이었던 것은 내가 29세 때 히데여사와 죄를 저지른 것이다. (중략) 나는 중국여행을 계기로 마침내 히데부인에게서 벗어났다. (중략) 그 후 손가락 하나도 건드린 적이 없다. 그러나 집요하게 집착하는 것에는 참으로 괴로웠다.

29) 김영희·백성희(2015)「야부노나카(芥の中)소고찰(1)-다조마루(多襄丸)의 자백을 통해 본 마사고(真砂)像」『일본근대학연구』47집, pp.220-224

주제를 부각시켰던 캐릭터는 다조마루로 볼 수 있다. 다조마루는 살인의 정황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첫마디부터 자신이 마사고의 남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조마루가 살인사건의 진범이라면 극형에 처해져 자신의 목이 날아갈 것임에도 일관되게 범인이라고 진술했다.

김용안은 다조마루의 진술에 대해 논리적이고 합당함을 천명하기 위하여 나리들을 모두 은유적이고 냉소적으로 비판했다고 한다.

우선 도둑인 타조마루는 3가지의 덕목 중에서 로고스 쪽에 무게가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합당함을 천명하기 위하여 나리들을 싸잡아 은유적이고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나리들이 속해있는 정치권력은 칼로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금권으로 심지어는 위선적인 말로 죽인다는 것이다. 자신의 논리개진을 위해 권력의 속성까지도 인용하여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살해에 대한 증언은 논리적이지 않을 수 없다. (중략) 타조마루의 증언은 지극히 앞뒤 논리가 정연하고 상세하며 칼부림의 숫자까지 드러내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으며 정당한 겨루기 끝에 타살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³⁰⁾

다조마루의 증언은 앞뒤 논리가 지극히 정연하고 상세하며 칼부림의 숫자까지 드러내는 치밀함을 보였고 정당한 겨루기 끝에 마사고의 남편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덤불 속」의 다조마루가 칼부림의 숫자까지 세는 치밀하고 정당한 결투로 다케히로를 죽였다는 진술은 모순이 있었다. 다조마루는 희대의 도적이라며 장검으로 스물 세 번의 칼을 휘두른 끝에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다조마루는 장검을 제대로 휘두르지도 못한 인물로 무사다운 결투는 없었다. 다조마루는 말도 제대로 타지 못하는 줌도독에 불과했다. 이는 다조마루가 포졸에 의해 검거되는 장면에서 짐작할 수 있다. 포졸이 다조마루를 검거할 때 말에서 떨어져 있던 그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포졸의 포승줄에 묶여 재판정으로 끌려왔다.³¹⁾ 다조마루는 다케히로가 가지고 있던 말과 화살, 화살통 등을 훔쳐 달아났으나 그 말을 제대로 타지 못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포졸이 진술한 작년 뒷산에서 처녀와 처녀의 몸종을 죽인 악명 높은 도둑이 다조마루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소문에 불과했다.³²⁾

30) 김용안(2010)「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관목숲속(藪の中)』론-작품 속에 내재된 3각 구조를 중심으로」『외국문학연구』제40호, p.40

31) 芥川龍之介(1995)『藪の中』『芥川龍之介全集』第八卷, 岩波書店, p.115

무엇보다도 내가 붙잡혔을 때는 말에서 떨어졌겠지요, 아와다구치(栗田口)의 둘다리 위에 끄꽂거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가죽을 감은 활, 검은 색의 화살 통, 매의 깃털 화살이 17개-이것은 모두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것이겠지요. 예. 말도 말쑥드렸던 대로 살색 털빛입니다. 그 짐승에 의해 떨어졌다는 것은 무언가 연유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둘다리 앞에 긴 끈을 맨 채로 길가의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조마루가 주장한 다케히로와의 무사다운 정당한 결투, 자신이 범인이라는 진술은 정황에 맞지 않은 모순이 있었다.

이시준은 「덤불 속」의 다조마루의 진술에 대해 사형을 각오한 자의 최후의 자백이어서 거기에 거짓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한편, 이에 반해서 후반의 당사자 3인에 의한 진술은, 각각 사건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어떠한 진술도 극히 주관적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전반의 4인의 증언과 매우 대조적이다. 다조마루의 진술의 경우, 사형을 각오한 자의 최후의 자백이어서 거기에 거짓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으며, 마사고의 경우도 부처에게 참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마지막의 다케히로의 경우, “무당의 입을 빌린 사령(死靈)”의 증언으로 거기에 인간의 허위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각각의 입장에서는 거짓이 없이 사건이 일단 완결되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대조하면 진실은 사라진다는 것에 있다.³³⁾

말하자면 다조마루뿐만 아니라 각각의 진술자들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일단 완결되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대조하면 진실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사형을 각오했던 다조마루의 진술은 사라진 진실로 보기 어렵고 그가 장점으로 살해했다는 사건현장에는 단점뿐이었다. 게다가 무녀의 입을 빌린 다케히로는 도둑에게 겁탈당한 아내가 오히려 그에게 매달리며 자신을 죽이라고 종용하는 모습에 세상의 덧없음을 느끼고 할복했다고 진술했다. 무녀를 통한 다케히로와 포졸의 진술은 다조마루의 주장이 사건의 정황에 맞지 않은 거짓일색으로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작년 뒷산에서 발생한 두 명의 부녀자 살인사건의 진범, 희대의 도적, 정의로운 무사 등은 다조마루에 의해 소문으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결국에는 다케히로의 살해 근거나 물증이 없었음에도 다조마루는 처형대에 자신의 목을 내놓고 있었다.

아무리 고문을 당하더라도 모르는 것은 말할 수 없다. (중략) 이것도 조작은 아닙니다. (중략) 어차피 한 번은 처형대에 걸릴 목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쪼록 극형에 처해 주십시오. (의연한 태도)³⁴⁾

32) 芥川龍之介(1995)『藪の中』『芥川龍之介全集』第八卷、岩波書店、p.115

여기 다조마루라는 놈은 성안을 배회하는 도둑 중에서도 여자를 좋아하는 녀석입니다. 작년 가을 도리베데라(鳥部寺)의 빈즈루(賓頭盧) 뒤편의 산에 참배를 다녀오던 아가씨와 그녀의 몸종을 함께 살해되었던 것은 이 놈의 짓인가라고 했습니다.

33) 이시준(2005)「라쇼몽(羅生門)-고전설화에서 영화로의 궤적」『문학과영상』제6호, p.240

34) 芥川龍之介(1995)『藪の中』『芥川龍之介全集』第八卷、岩波書店、pp.117-122

「덤불 속」의 다조마루는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대에 목이 걸리더라도 조작된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통해 거짓으로 점철된 삶이 드러났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줌도독에 불과했던 다조마루는 자신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이에 대한 경각심이나 위기의식을 깨닫지 못한다. 다조마루의 행태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어 반복적인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이를 진실로 믿고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있는 캐릭터였다. 말하자면 성취욕구가 강한 무능한 개인이 이를 수 없는 사회구조에서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시달리다가 상습적으로 거짓말과 행동을 하면서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는 오늘날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보였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의미하는 리플리증후군이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시달리다가 반복적인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이를 진실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³⁵⁾ 「덤불 속」의 다조마루의 이기적인 행태는 리플리증후군과 유사하며, 이 같은 사례는 오늘날 매스컴에서 접할 수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게재된 내용으로 2014년 6월 4일 일본 이화학연구소에서 오보가타 하루코(小保方晴子)의 ‘STAP(자극자기 다능성)세포 논문 철회 사건’을 들 수 있다.³⁶⁾ 오보가타의 논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철회를 요구하자 그녀는 여러 차례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며 눈물로 호소했으며 결코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같은 모습은 자신이 만든 허구의 세계를 사실로 믿고 있는 듯 했다. 한국에서도 리플리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 사례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³⁷⁾ 리플리증후군의 행태는 단순한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피해를 입히며 자신도 파멸하는 「덤불

35) 김동명·신은실(2016)「거짓말」『한국독립영화협회 기타간행물』1월호, p.8

‘자신과 현실을 부정하면서 마음속으로 꿈꾸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리플리 증후군’이라 부른다 한다. N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두산백과에 따르면 ‘성취욕구가 강한 무능한 개인이 마음속으로 강렬하게 원하는 것을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어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시달리다가 상습적으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이를 진실로 믿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36) 『毎日新聞』2014년6월6일(<https://mainichi.jp/articles/20140606/mog/00m/040/003000c>)

이화학연구소의 STAP세포 논문 문제로 이연이 부정하다고 인정한 주요 마이니치 신문 내용 인용논문에 대해서 오보가타 하루코 연구 유년리더가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이 4일 밝혔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한명의 책임자 미국 합대대학의 찰스 베컨티 교수도 철회의 동의를 표했다고 한다. STAP세포 연구는 백지화 될 공산이다.

37) 김철진(2016)「리플리증후군」『영광신문』11월14일

(<http://www.y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460>)

그리고 몇 해 전,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 6년여 동안 명문대 신입생 행세를 한 신입생 엑스맨, 스탠포드 하버드 동시합격 김양, 스위스 국적의 미모의 국제 재무사 행세를 해온 여성 재무전문가 안씨, 그밖에도 30여 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짜 서울대 법대생 사건’, 음대생으로 살고 싶었던 30대 입신부의 사연, 실업계 고교 출신인 자신이 연세대에 들어가 삼성 SDS에 특채로 채용되기까지의 사연을 펴내 ‘청년 멘토’라 불리던 김씨, ‘의사이자 재벌가 며느리’ 거짓 인생 살아온 주부 등 리플리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 사례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속」의 다조마루와 유사했다. 다조마루는 결과적으로 살인죄를 면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렸고 결국 자신의 거짓말에 무너져 버린 캐릭터였다. 다조마루와 마사고의 캐릭터의 꺾진적 요소는 인간의 이기주의를 극대화시켰을 뿐 아니라 영화 <라쇼몽>의 전반적인 플롯으로 주제를 이끌어냈다. 요컨대 캐릭터의 꺾진성은 도식화된 캐릭터에 비해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고 ‘라쇼몽 효과’의 주제와 맥을 같이 했으며 이기적인 대중의 표상으로 현대에도 소통되었다.

4. ‘라쇼몽 효과’의 현대적 수용

아쿠타가와와 「라쇼몽」과 「덤불 속」에는 작가의 근대의식을 상징하는 문학적 공간, 사체의 냄새가 풍기는 혐오스런 라쇼몽 누각과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없는 법정을 배경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간의 실상을 캐릭터로 담았다. 「라쇼몽」은 자신의 악행을 합리화시키는 하인과 노파, 「덤불 속」에는 편협한 이기주의로 진실의 실체를 가리는 캐릭터로써, 이를 통해 진실규명은 가능한지 과연 진실은 존재하는 것인가의 작가의식이 투영되었다. 무엇보다도 「덤불 속」의 등장인물들의 진술은 오히려 저마다 설득력 있는 개연성을 획득함으로써 되레 사건의 진실을 미궁으로 빠뜨려 그 사건의 실체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했다. 결말이 나지 않은 미완의 형태를 갖춘 「덤불 속」은 소설의 내용보다 주제구현에 집중되었다. 아쿠타가와문학의 주제의식을 놓치지 않았던 구로사와 감독은 애초 시나리오에는 「덤불 속」으로만 각색되었으나 그도 공동 작업을 하면서 「라쇼몽」을 중간매개로 설정했다는 것이다.³⁸⁾ 구로사와 감독은 「라쇼몽」의 거의 다 허물어진 낡은 누각을 전반적인 배경으로 설정해 영화의 타이틀로 내걸었으며, 「덤불 속」의 사건의 진실규명은커녕 그 실체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결말로 구성된 내러티브를 연출했다. 영화는 일종의 ‘야부노나카 신드롬’을 일으켰고 이런 현상으로 소설 제목인 「덤불 속」은 일본판 ‘오리무중’이란 의미로 정착되기도 했다.³⁹⁾ 일본

38) 이시준(2005)「라쇼몬(羅生門):고전 설화에서 영화로의 궤적」『문학과영상』6호, p.243
구로사와의 인터뷰기사에 의하면, 하시모토 시노부(橋本忍, 시나리오 작가)가 아쿠타가와와 「덤불숲」으로만 소재로 쓴 시나리오가 너무 짧아서 원작에는 없는 나무꾼을 사건의 진상을 목격자로 하고 그의 독백을 더하면 적당한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하던 중, 마찬가지로 헤이안시대를 배경으로 한 아쿠타가와와 「라쇼몬」을 중간 매개체로 쓸 것을 결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39) 전계주, pp.31-32
바로 이것이 이 소설이 이야기한 일종의 <야부노나카(藪の中)신드롬>인 것이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이 소설 제목인 <야부노나카>가 결국에는 일본판<오리무중(五里霧中)>이란 의미의 단어로 정착되기도 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제작된 이듬해 1951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 영화는 세계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영화 <라쇼몽>은 여러 나라에서 번안해 리메이크되기 시작했으며 원제를 그대로 사용한 신디 루미트 감독의 <라쇼몽(Rashomon)>(1960)을 비롯해 마틴 리트의 <폭행>(1964), 데이비드 핀치의 <소셜 네트워크>(2010) 등 현재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 발표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타이틀로 상영되었던 영화는 <라쇼몽>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연출하려 했다. 여기에는 ‘야부노나가 신드롬’을 일으켰던 「덤불 속」의 등장인물들이 동일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각자의 자기합리화의 이기주의가 작용함으로써 여러 사건을 접하는 듯 혼돈을 야기하는 결말과 맞닿아 진실의 실체가 가려지는 결론이 반영되었다. 「덤불 속」의 주제의식이 영화의 플롯이었음에도 영화의 타이틀이 「라쇼몽」이었기에 콘텐츠의 파급 효과로 ‘라쇼몽 효과’를 도출했다. 이를테면 ‘라쇼몽 효과’는 문학텍스트의 영화적 변용에서 주제를 압축적으로 제시된 결과로 ‘야부노나가 신드롬’과 맥을 같이했다. 나아가 ‘라쇼몽 효과’의 주제의식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문학텍스트의 서술형식을 연출기법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영화의 주제가 ‘오리무중’의 의미로 ‘라쇼몽 효과’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덤불 속」의 독특한 서술형식에 있었다. 「덤불 속」에서 한 무사의 죽음을 두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을 펼치는데, 그들의 진술은 제각각 나열하는 형식으로 마치 지문이 없는 시나리오와 같이 기술해,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나 대립구도의 전개방식은 일반적인 소설의 형식과 달랐다. 「덤불 속」의 서술형식은 각각의 등장인물을 소재목으로 제시, 각 인물들이 일인칭의 시점으로 진술한 내용은 하나의 단락이 되어 모두 일곱 단락으로 이뤄져 있었다. 「덤불 속」에서 재판정에 나와 심문을 받고 있는 용의자들은 과거의 덩불 숲속의 한 무사의 죽음에 대해 진술함으로써, 재판정의 현재진행사건과 숲속의 과거사건의 구도로 이뤄져 있었다. 용의자 일곱 명의 제각각의 시점으로 전개된 「덤불 속」의 무사의 죽음이라는 단하나의 사실이 사공간적으로 전개되는 다각적인 측면을 보였다. 작중인물의 다중의 시점과 시·공간의 다각적인 구도로 복잡하게 얹혀 있음에도 그대로 끝나버린 「덤불 속」의 서술형식은 근대소설로써 획기적인 양식으로 영화의 연출기법에 수용했다. 구로사와는 「덤불 속」에서 하나의 사건을 다각적인 구도로 서술한 형식을 영화에서 플래시백(Flashback-フラッシュバック) 기법⁴⁰⁾으로 채택했다. 「덤불 속」의 서술형식은 과거와 현재의 병치, 그리고 기억과 역사의 병치 등 영화의 플롯으로 각색되었다. 영화의 플롯을 통해 다중의 등장인물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상이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연출되어 아쿠타가와문학의 철학적 주제를 한층 부각시킴으로써 플래시백 기법은 ‘라쇼몽 스타일’로 일컬어졌다. ‘라쇼몽 스타일’의 플래시백 기법은 세계 각국의

40) 安江良介(1993)『広辞苑』第四版, p.2271

영화에서 이야기의 진행 중에 과거의 사건을 삽입하는 것, 회상의 표현을 위한 기법

여러 편의 영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⁴¹⁾ ‘라쇼몽 효과’와 ‘라쇼몽 스타일’을 바탕으로 영화 뿐만 아니라 연극, 뮤지컬, TV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로 파급되기 시작했다. 2005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는 처음으로 뮤지컬 <씨왓아이워너씨>의 공연을 비롯해 영화 <라쇼몽>을 기반으로 리메이크되었던 다양한 콘텐츠는 세계 각국에서 공연하였다. 최근 한국에서도 TV 드라마로는 <가면과 진실>이라는 타이틀로 방송했으며 연극과 뮤지컬은 여러 차례 상연되었고 이에 관한 평가로 아쿠타가와와 원작에 관한 주제의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은경은 연극 <나생문>은 인간의 본질적인 딜레마를 예리하게 포착한 작품으로 그 원작에 대해 구로사와의 영화 <라쇼몽>을 언급했다.

최근에 이미 잘 알려진 영화를 원작으로 한 연극이 공연되어 주목을 끌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나는 고백한다>가 각색되어 연극으로 공연되었다. 극단 수&이바디의 <나는 고백한다>(신호 연출, 박상민 각색)가 그것이다. 극단 수는 이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나생문>을 각색한 연극 <나생문>을 수차례 공연한 바가 있다. <나는 고백한다>는 히치콕 감독의 영화 중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딜레마를 예리하게 포착한 작품이다. 그리고 연극 <나는 고백한다>는 원작의 기본골격을 빌려왔지만 달라진 결말을 통해 주제의식의 변화를 보인다.⁴²⁾

연극 <나생문>은 구로사와의 영화를 기본골격으로 주제의식을 포착해 연출한 작품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정작 아쿠타가와와 원작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연극이나 영화뿐만 아니라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의 파급효과는 아쿠타가와문학에서 비롯되었으며 근대소설이 시대와 장르를 초월해 현대에도 수용되었다. 나아가 매스컴을 통해 사회전반적인 문제점이나 비판에 빈번하게 언급되는 ‘라쇼몽 효과’는 그 주제의식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41) 김정호(2006)「플래시 백 분석 : 라쇼몽과 세편의 영화의 경우」『영화연구』제29호, 한국영화학회, p.8
Flashback은 시간적 순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시간대의 순간들을 병치시키는 특수한 순간이다. 과거와 현재의 병치, 그리고 기억과 역사의 병치가 바로 플래시백이다. 플래시백이라는 용어는 문학에서 기인한 용어가 아니라, 분명 영화에서 먼저 사용되었고 실행되었던 개념이다. (중략) 흔히 라쇼몽 스타일로 알려진 다중의 등장인물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상이한 진술을 하는 형식을 취하는 영화들, 즉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羅生門)>(1950)과 폴란드 감독 안제이 뭉크 Andrzej Munk의 <철로위의 남자 Man on the tracks>(1957), 이탈리아 감독 마리오 바바 Mario Bava의 <Four Time That Night>(1969), 그리고 브라이언 드 팔마 Brian De Palma의 <Snake Eyes>(1998)에서 플래시백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42) 이은경(2009)「신념이 무너지는 시대에 대한 메타포-《나는 고백한다》」『연극평론』복간34호(통권54호), p.196

5. 마치며

오늘날 대중매체에서 ‘라쇼몽 효과’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해석해 본질을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언급되어 왔다. 아쿠타가와와 「라쇼몽」과 「덫불 속」을 각색한 구로사와의 영화 <라쇼몽>에서 비롯된 ‘라쇼몽 효과’는 대중적으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라쇼몽 효과’의 콘텐츠는 세계 각국에서 리메이크되었으며 최근 한국에서도 뮤지컬과 연극으로 공연하는 등 날로 각광을 받고 있어 그 원형적 의미를 아쿠타가와문학에서 고찰하였다.

다양한 콘텐츠의 ‘라쇼몽 효과’는 아쿠타가와문학의 시대의식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간의 표상에 중점을 두었던 「라쇼몽」과 「덫불 속」에 기초했다. 「라쇼몽」의 사체의 냄새가 풍기는 혐오스런 황폐한 누각은 인간의 악행이 합리화되면서 동시에 그런 인간 뿐인 공간이었으며, 「덫불 속」의 재판정은 실체를 드러내지도 않고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재판관과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용의자들뿐이었다. 아쿠타가와는 라쇼몽 누각에 윤리적인 가치관마저 무너진 전후 일본의 사회를, 사건의 진실규명은커녕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재판정에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았는데, 근대사회에 대한 작가의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의식이 표출되었다. 이와 같은 근대의 상징적 공간에 아쿠타가와는 등장인물의 캐릭터로 자신의 경험을 담았다. 「덫불 속」의 마사고는 아쿠타가와가 사랑했던 시게코와 닮은 데가 있었다. 연인에게 배신을 당한 아쿠타가와 「덫불 속」의 마사고에 투영했으며, 그녀는 능욕을 당했으며 오�히려 정부에게 남편을 죽이고 달아나자고 유혹하는 캐릭터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덫불 속」의 다조마루는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면서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는 성취욕구가 강한 인간의 이기적인 행태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겪는 인물이었다. 아쿠타가와 문학의 등장인물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에 주목했으며 그럼에도 현실에 혼하지 않은 인물로써, 캐릭터의 껍진적 요소는 결국 인간의 이기주의에 초점을 맞췄다. 아쿠타가와문학에서 각각의 캐릭터가 극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덫불 속」의 서술형식에 있었다. 「덫불 속」의 서술형식은 등장인물의 진술만 나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각자의 편협한 이기주의로 인해 사건의 본질 자체를 전혀 다르게 해석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만 남겼다. 이러한 주제의식을 한층 압축적으로 그리고자 했던 아쿠타가는 「덫불 속」의 지문이 없는 시나리오 형식으로 기술했으며 이를 구로사와가 영화 <라쇼몽>에 담아 ‘아부노나가 신드롬’을 일으켰다. 영화는 전반적인 플롯의 「덫불 속」을 통해 과연 진실은 존재하는 것인지, 진실규명은 가능한지의 주제를 제시하였음에도 서브플롯이었던 「라쇼몽」이 영화의 타이틀로 차용되어 ‘라쇼몽 효과’

의 신조어가 생겨났다. ‘라쇼몽 효과’는 「덤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기적인 행태는 ‘오리무중’의 의미를 부여했으며 이는 아쿠타가와 의 인간 인식의 원형적 의미라 할 수 있었다. 아쿠타가와 의 문학이 영화에서 ‘라쇼몽 효과’의 철학적 주제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덤불 속」의 서술형식이 연출기법으로 각색된 요소였다. 구로사와는 「덤불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제각각 일인칭 시점의 진술을 과거와 현재, 시간대와 기억을 병치시키는 플래시백 기법으로 영화를 연출했다. 영화 <라쇼몽>의 플래시백 기법은 ‘라쇼몽 스타일’로 일컬어지며 영화 장르의 연출기법으로 여러 편의 영화에도 활용되었고 이것은 오늘날 다양한 콘텐츠에도 수용되었다. 요컨대 아쿠타가와문학에 기초한 ‘라쇼몽 효과’의 원형적 의미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의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대중매체에도 등장해 소통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텍스트>

芥川龍之介(1995~1998)『芥川龍之介全集』第一卷~第二十四卷、岩波書店

<국내·외 간행물 및 논문>

安江良介(1993)『広辞苑』第四版、p.2271

菊池弘(1972)「羅生門」『国文学』第17卷第16号臨時号、学灯社、p.35

三好行雄(1979)「芥川龍之介略年譜」『国文学』2月号、p.223

海老井英次(1987)「偷盜」『芥川龍之介論攷』桜楓社、pp.142-143

_____ (1987)「年譜」『芥川龍之介論攷』桜楓社、pp.433-434

이시준(2005)「라쇼몽(羅生門)-고전설화에서 영화로의 궤적」『문학과영상』제6호、p.240

김정호(2006)「플래시 백 분석 : 라쇼몽과 세편의 영화의 경우」『영화연구』제29호、한국영화학회、p.8

강혜선(2008)「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야부노나카(藪の中)』에 나타난 부조리성 연구」『인문연구』제70호、pp.441-449

송민숙(2008)「강한 시청각 이미지를 제공한 뮤지컬<씨앗아이워너씨>」『공연과이론』31집、p.215

이은경(2009)「신념이 무너지는 시대에 대한 메타포-《나는 고백한다》」『연극평론』복관34호(통권54호)、p.196

김용안(2010)「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관목숲속(藪の中)』론-작품 속에 내재된 3각 구조를 중심으로-」『외국문학연구』제40호、pp.31-40

김영희(2010)「야부노나카『藪の中』소고찰(2)-「기요미즈테라에 온 여자의 참회」단락에서 보는 마사고의 사랑」『일본문화연구』제56집、p.20

김영희·백성희(2015)「야부노나카(藪の中)소고찰(1)-다조마루(多襄丸)의 자백을 통해 본 마사고(真砂)像」『일본근대학연구』47집、pp.220-224

김동명·신은실(2016)「거짓말」『한국독립영화협회 기타간행물』1월호、p.8

『毎日新聞』2014년6월6일(<https://mainichi.jp/articles/20140606/mog/00m/040/003000c>)

김철진(2016)「리플리중후군」『영광신문』11월14일(<http://www.y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460>)

언론 뉴스허브(2011.07.02)<<http://news.zum.com/articles/240554>>

JTBC 앵커브리핑(2015.03.02.)<<http://news.zum.com/articles/20151250?cm=popular>>한국

논문투고일 : 2019년 03월 25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4월 16일
1차 수정일 : 2019년 05월 09일
2차 수정일 : 2019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5월 17일

〈要旨〉

‘라쇼몽 효과’의 현대적 수용과 원형적 의미

- 아쿠타가와와 「라쇼몽」과 「뎀불 속」을 중심으로 -

김옥지

‘라쇼몽 효과’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해석해 본질을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언급되었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라쇼몽」과 「뎀불 속」을 각색한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 <라쇼몽>에서 비롯된 신조어이다. 대중적으로 수용되는 ‘라쇼몽 효과’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리메이크되어 널리 각광을 받고 있는 반면에 정작 콘텐츠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아쿠타가와문학은 간과되었다. 이에 아쿠타가와문학에서 비롯된 ‘라쇼몽 효과’의 원형적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아쿠타가와와 「라쇼몽」과 「뎀불 속」에 사건이 전개되는 라쇼몽 누각과 재판정을 상징적 공간으로 부여해 근대의 시대의식과 인간인식의 원형으로 담았다. 그리고 「뎀불 속」의 재판정은 진실규명은커녕 사건의 실체조차 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나아가 아쿠타가와와 근대의 상징적 공간에 그 시대를 표상하는 등장인물의 캐릭터설정에도 주력했다. 아쿠타가와문학의 등장인물들은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면서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는 성취욕구가 강한 인간의 이기적인 행태로 오늘날 매스컴에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등장인물의 각각의 캐릭터가 극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뎀불 속」의 기술 형식에 있었다. 「뎀불 속」의 서술형식은 마치 지문 없는 시나리오와 같이 등장인물의 진술이 하나의 단락이었고 모두 일곱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어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나 대립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편협한 이기주의가 사건의 본질 자체를 전혀 다르게 해석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만 남겼다. 여기에 ‘라쇼몽 효과’의 원형적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작가의식을 놓치지 않았던 구로사와 감독은 영화 <라쇼몽>에 연출기법으로 활용했으며 아쿠타가와문학에 기초한 ‘라쇼몽 효과’의 철학적 주제를 도출했다. 아쿠타가와문학에서 비롯된 ‘라쇼몽 효과’ 원형적 의미는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여 현대에도 수용되어 소통하고 있었다.

Modern Reception and Prototypical Meaning of Rashomon Effect

- *Rashomon and Yabunonaka of Akutagawa Ryunosuke* -

Kim, Ok-Ji

The ‘Rashomon Effect’ is a phenomenon that recognizes the essence differently from one case to the other. It is a coined word derived from Akira Kurosawa’s movie “Rashomon”, which adapts Rashomon of Akutagawa Rinosuke and Yabunonaka.. The popular Rashomon effect has been remodeled from various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nd Akutagawa literature, which can be regarded as a prototype of the contents, has been neglected. Therefore, I would like to consider what the prototype meaning of ‘Rashomon effect’ originates from Akutagawa literature. The character of Akutagawa literature can be seen in today’s media as a selfish behavior of a human being with a strong desire for achievement that truly believes in a fictional world while repeating false words and actions.

Akutagawa has given the Rashomon pavilion and the courtroom as a symbolic space where events are held in Rashomon and Yabunonaka, and it is a starting point of modern consciousness and human perception. And the judgment in the Yabunonaka resulted in the fact that the reality of the event was blocked, not the truth. In addition, he focused on the characters of the characters who represent the times in the symbolic space of modern times. It was in the form of a Yabunonaka that the character of each person in Akutagawa literature could be maximized. All were divided into seven paragraphs, and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between the characters were originally blocked. As a result, human narrow-minded egoism has left the fact that the nature of the event itself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Here, there was the prototype meaning of ‘Rashomon effect’. Kurosawa, who did not miss such an awareness of the artist, used it as a technique for directing the film “Rashomon” and derived the philosophical theme of “Rashomon Effect” based on Akutagawa literature. The original meaning of ‘Rashomon Effect’ originating from Akutagawa literature was accepted and communicated even beyond the times and countries.